

투데이 칼럼

언행일치(言行一致)형의 사람이 되자

언어는 자력과 같고 말 속
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
따라 그 말에 온갖 것들이
달라붙는다.
GE의 전 회장 잭 웰치가 그렇게
강조했던 리더십의 첫째 덕목이 바
로 솔직한 표현이다.
말은 인격이며 그 사람의 향수이다.
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
뒤 말을 해야 하는데 사자성어에
"삼사일언(三思一言)"이라는 말이
있다. '모름지기 세 번 생각한 다음
에 말하면 실수와 화를 면할 수 있
다'는 의미이다.
도덕경에 나오는 "다언(多言)불수중
(多言無事)"이다.
말이 너무 많으면 공지에 물릴
수 밖에 없으니 오히려 말없이 자
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낫다 라
는 의미이다.
말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유지되어
야 한다.
먼저 머리와 가슴에 담아두고 입
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,
차선은 말을 하더라도 꼭 할 말을
잘 골라 하는 것이다. 그 다음은 말



김 양 옥
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대표

을 하면 반드시 행동을 실천하는
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한 사람의 인격(人格)을 나타내며
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로
'인품(人品)'으로 쓰인다.
'품(品)'은 "입 구(口)"가 세 개
모여 이루어졌는데 즉, 말이 쌓이고
쌓여 한 사람의 인품이 된다는 것
을 알 수 있다.
그래서, 말 한마디에서도 마음의
소리, 그 사람의 체취, 고유한 향
(香)이 뿜어져 나온다.
'언위심성(言爲心聲)'이라는 사자
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'감동을 주
는 말은 화려한 어휘와 현란한 화
술로 치장하는 말이 아니라 말 속

에 진심이 담긴 말이다' 라는 의미
이며 최고 값있는 말은 진정성의
말이다.
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비로소 온
기를 얻고 언행이 일치할 때 사람
의 말과 행동은 강한 생명력을
얻어 살아있는 최고의 말이 된다.
그리고 상대의 마음에 더 넓게,
더 깊게 자리를 잡는다.
도산 안창호 선생의 '무실역행(務
實力行)'의 가름침이 있는데 '무
실'은 '잘못되게 힘쓰지'는 것이다.
'역행'은 '뒤로 미루지 말고 현재
에 충실히 하자'는 의미이니 실행
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.
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

게 크면 조직생활과 인간관계에서
큰 손해를 입게 된다.
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
유형 1위는 "말과 행동이 다른 동
료"인데 매번 '나중에 할게', '호언
장담'만 하는 동료라고 한다.
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?
그것은 바로 '언행일치' 말에 대
한 신뢰성이 크다.
그리고 말이 지나치게 많으면 실
언할 가능성이 높고 스피치의 1초
3초의 화법으로 입밖으로 꺼내야
하고 '간결하게 세심하게'라는 화
법을 사용하여 간결하면서도 구체성
이 있어야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도
있다.
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입에
서 곧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다고
해도 과언이 아니니 스피치 학습은
매우 중요하다.
'언행일치'로 호감 받고 잘 사는
사람이 되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
보자.
스피치기법은 후천적으로 습득한
기법이니 인위하게 생각 말고 스피
치 훈련습습에 참가하자.

사설

새만금 중국기업유치 계속 활발해야

새만금 쪽에서 밝은 소식이 들
려오고 있다. 새만금 개발청이
'내츄럴 프로테인스코리아'와 투
자협약을 한 것이다. 11월에 고기
농성 단백질 생산공장 착공 작업
에 들어갈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
아는 한국법인이다. 그래도 중국
에 적을 두고 있어 새만금이 한중
산업 협력의 장으로 발돋움하리
라는 기대이다. 새만금 산업단지
1공구에 3만3천 평방미터 규모의
용지를 매입하고 총 340억 원을
투자하기로 한 것이다. 근래 기업
유치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
렸던 터라 신심하기까지 하다.
새만금에 외국기업이 투자해 공
장을 짓게 된 것은 잘 된 일이다.
그동안 외국기업은 물론이고 국
내기업 유치 성과가 생각보다
저조했었는데 한중산단 활성화의
청신호처럼 여겨진다. 전북도는
이럴 때 생각을 잘 가다듬어야 한
다.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때
일자리 창출에도 마음을 써야
한다는 주문이다. 도내에 일자리
가 부족하고 고용시장이 열악하
기 때문이다. 국내기업이라도 외
국에 돈을 풀면 그것은 그 기업
만의 문제라서 관심 밖이다. 그러

나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에 자금
을 풀면 그것은 큰 관심의 대상이
아닐 수 없다.
새만금에 외국기업이 들어서는
것을 반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.
바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때
문이다. 일자리 창출이 있으면 고
용안정도 따라서 있을 터이다. 다
시 말하게니와 전북도는 국내 기
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기업유치와
관련해서 구체적인 실적을 보여
야 한다. 전북도는 이번처럼 앞으
로도 중국기업유치와 관련해서
활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.
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.
실제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도
진짜로 유치된 기업이다. 이번
MOU 체결과 관련해 구체화에 힘
을 실어야 한다는 당부이다. 서명
만 해놓고 그 시기를 한정없이 미
루고 미루다가 없었던 일로 과거
시켜버린 기업들이 그 얼마나 많
았는가. 그러므로 기업유치가 계
속 활발해야 한다는 지적은 실제
로 기업 유치 실적이 뚜렷해야 함
을 말하는 것이다. 거듭 당부하거
니와 전북도는 중국 기업 유치와
관련해 앞으로도 활발한 모습을
보여주기 바란다.

독자제언

졸음쉼터 이용으로 교통사고 예방하자

운전을 하다가 '졸음'이 몰려오면
어떻게 하는가? 주로 졸기나 음주, 과
자 등의 음식 섭취, 또는 환기와 노래
를 듣는 등의 방법으로 졸음을 쫓곤
한다.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는
잘 알고 있을 것이다.
가장 확실한 방법은 잠깐의 휴식이
지만, 휴게소가 아니라면 말 편히 휴
식을 취할 수 없다. 그래서 졸음운전
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인
졸음쉼터를 적극 이용하여 교통사고
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.
졸음쉼터는 고속도로, 국도에 설치
된 안전한 휴게시설이다. 고속도로에
차량이 대피, 정차할 공간을 만들어
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
었다. 고속도로에는 25km마다 하나의
휴게소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

데 정말 졸음이 심한 상황에서는
25km를 주행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
에 휴게소 사이사이에 졸음쉼터를 운
영하여 운전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
을 보장하는 것이다.
졸음쉼터는 2차 사고의 걱정 없이
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졸
음과 사투를 벌이는 운전자에게 큰
도움이 된다. 꼭 졸음운전이 아니더라도
운전을 하는 중에 차에 이상이 생
기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정차가 필
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졸음쉼터를
이용하여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. 나의
안전, 더 나아가서는 고속도로 위의
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
위해서도 졸음쉼터를 적극 이용했
으면 하는 바람이다.
이진제 원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

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

'웰컴 투 자카르타'



2018 자카르타-팔렐방 아시아인게임 개막을 이틀 앞둔 16일(현지시각)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수촌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인도네시아 자원봉사자가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.

중소 제조업체들의 형편을 살펴야

중소 제조업체들의 형편을 살펴
야겠다. 이같은 당부의 말은 이번
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다. 그럼
에도 거듭해서 반복하는 이유가
있다. 도내 제조업체들과 관련하
서 지역 경제를 열려라지 않으면
안되는 지극이다. 영세한 기업을
살리자는 목소리가 컸지만 예산과
비교해 별로 당락이 없지 않다.
일미전의 보도를 떠올리자면
도내에 제조업체가 증가했지만
말이다.
전북도는 짚어봐야 할 것이 있
다. 도내 제조업체들이 증가했
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.
본과 열거된 한도 도내 제조업
체는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다. 제
조업체들이 몰아났다는 것과는 반
비례로 대다수의 영세한 제조업체
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
했다. 그러므로 어떤 것이 실상에
맞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다. 전
북도는 비관적인 그리고 낙관적인
보고 사에서 상황 파악이 정확
해야 한다.
그래서 여기 당부하고 싶은 말
은 도내 제조업체들의 실제 형
편을 면밀히 살펴야겠다는 것이
다. 도내 제조업체가 늘었지만
30명 1인의 열세가 아직도
대다수이기 때문이다. 그것은

언제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졸
졸이 도산할 지 그른다는 염려
를 갖게 한다. 지난 삼수 년간
의 사례가 그걸 생생하게 하는
것이다. 한 때 수확이 높았던
서 발전의 증거가 아니었느냐고
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돈이 없
지 않는 우리 지역의 경제는 정
체된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
다. 전북도는 도내에서 일자리
가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
어떤지 궁금하다.
지금 중소기업인들은 체감경
리를 안 좋게 느끼고 있다. 도내
제조업체들에게 관심은 촉구하
는 이유는 분명하다. 그동안 중
소업체들도 지역 경제를 받쳐주
는데 대기업만큼이나 그 역할이
했다. 그러므로 전북도는 가벼
운 지원만으로 중소기업들을 고
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. 지
난 날 어려울 때는 도내의 영세
한 기업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
산도산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
한다. 군산과 난원에서 대량으
로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그것
을 상쇄할만한 밝은 소식이 전
혀 없는 지금 전북도는 희망의
근거를 찾아야 한다. 지난 영세
한 제조업체들은 그걸 간절히
바라고 있다.

전주매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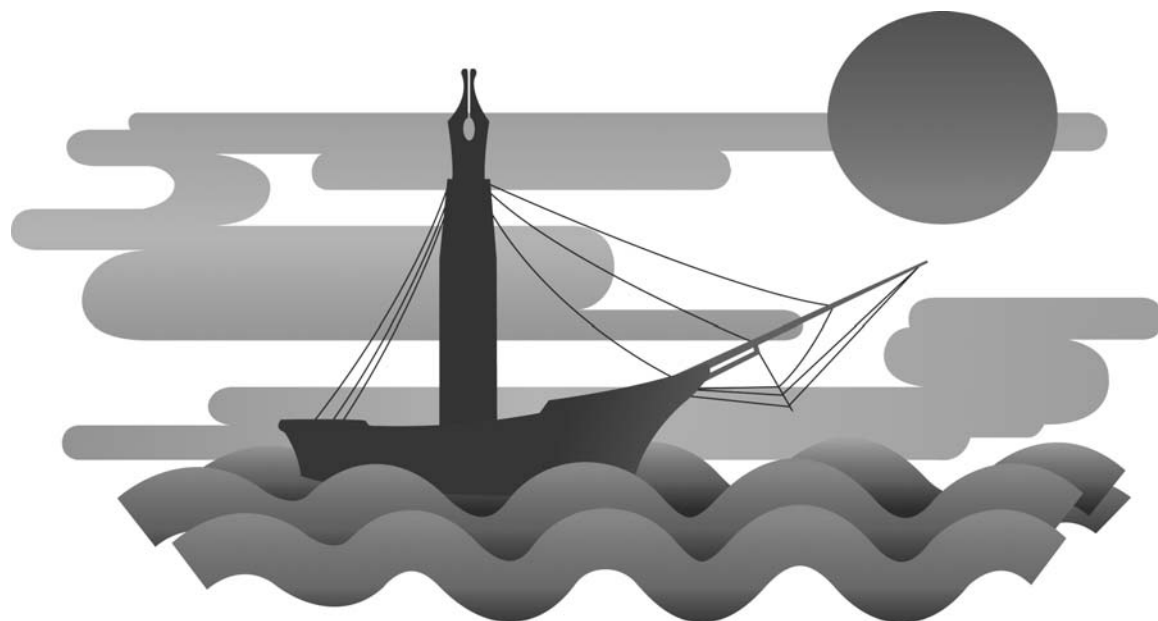
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
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.

(우)560-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-80 승주빌딩 4층

전주매일 전자신문 www.jjmaeil.com

서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



"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"을 위해
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
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
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
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

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
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
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
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

인간중심 · 도덕중심 · 지역중심 **전주매일**